

실천적 활동을 통한 독도 인식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접 수 번 호	기재하지 마시오
학 교 명	대원여자고등학교
동아리(팀)명	대원 독도지킴이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동아리(팀)명 소개

동아리 구성원이 저희 학교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국제로타리 인터랙트 클럽 회장, 선도부, 자치법정 임원이기 때문에 교내에서 보다 더 폭넓은 독도활동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지도교사 선생님이 전인안전교육부장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고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독도 활동을 펼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교내에서 학생들의 독도사랑 실천을 위해 힘쓰고 독도활동을 위해 한발 더 앞장서서 다양한 독도활동 및 체험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동아리라는 의미로 '대원 독도지킴이'를 동아리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원학원에 속해있는 네 학교(대원여자고등학교, 대원고등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대원국제중학교)를 대표하는 동아리로서 우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 함양과 관심 증진을 위하여 기여하는 동아리라는 의미로 이 동아리 이름을 정했습니다.

○ 동아리(팀) 구성원 ※ 동아리(팀) 구성원 변경 시 변경 전·후 명시하여 표기할 것

순번	성명	학년	동아리(팀) 내 역할
1	박가은	2	독도활동 UCC 제작, 독도활동 주관
2	성예진	2	독도활동 UCC 제작, 사진 촬영
3	오현정	2	독도활동 UCC 제작, 교내 독도활동 추진
4	유지혜	2	활동 요약서 및 활동 보고서 작성, 독도활동 계획
5	이채현	2	활동 요약서 및 활동 보고서 작성, 독도활동 계획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활동 주제** : 교내 독도활동 활성화를 통한 독도사랑 실천 및 지역사회로의 관심 증대

- **주제 선정 이유** : 독도와 관련된 교내 활동의 부족함을 느끼고 교내 독도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던 도중 이를 주제로 활동을 하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저희 동아리 지도교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교내 독도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도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여 저희끼리의 활동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교생의 독도에 대한 관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독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도중 친구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이야기하지만 왜 우리 땅인지 그 이유와 독도의 지리적 위치 등 독도의 장점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문제 삼고 개선시키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고 교내 학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독도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다양한 활동이 저희 동아리 구성원만의 활동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학교 전체, 더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치자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저희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독도를 알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이를 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 **활동 기간** : 2018.05.02.-2018.08.06

○ 추진 방법

가. 대원여자고등학교 전인안전교육부서와 대원학원의 네 개 학교의 학생회와 협력하여 진행함.

나. 독도캠페인, 독도 체험관 견학, 독도교육, 독도워크북 제작, 대원독도신문 만들기를 대원여자고등학교 학생회, 선도부, 자치법정과 협력하여 진행함.

다. 동아리 구성원만의 활동이 아닌 전교생, 나아가 지역주민과 함께 진행함

○ 활동 내용(자유롭게 기재하시오.)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2018.05.02. ~2018.05.04.	독도 관련 설문조사	대원여자고등학교 교문 앞, 대원남자고등학교 교문 앞,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앞, 대원여자고등학교 급식실	<p>독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와 지식 습득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원학원에 속해있는 세 학교인 대원여자고등학교, 대원고등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의 등굣길에서 학생 2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p> <p>설문조사 결과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학생은 38명인 13%에 불과했으며, "아니오"라고 답한 학생은 257명인 8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또한 "독도와 관련된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시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학생은 267명인 90.5%였으며, "아니오"라고 답한 학생은 28명인 9.5% 뿐이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 대상이 295명이었다는 점과 대원학원에 속해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설문조사 결과에 약간의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인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는 사람이 87%나 되었다는 것을 볼 때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증진시켜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독도와 관련된 활동의 필요성을 90.5%라는 많은 학생들이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독도 활동의 결핍을 증명함과 동시에 독도와 관련된 활동이 확산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증명했습니다.</p>
2018.05.08. ~2018.07.25.	독도 캠페인	대원여자고등학교, 학교 부근 길거리, 아차산역, 어린이대공원 내부	<p>설문조사 후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 설문조사 결과를 낸 후부터 2주에 한 번씩 대원여자고등학교의 등굣길에서 독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독도사랑을 실천합시다.", "독도를 지키는 사람은 우리입니다."라는 문구를 외치며 저희 학교 학생들이 독도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쉽게 접할 수 없고 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가 아니었던 독도를 아침에 등교하면서 듣게 함으로써 독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독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독도에 대한 주권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p> <p>저희 학교에서만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대원여자고등학교에서 어린이대공원 후문(아차산역)까지 걸어가며 독도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에서 사람이 많은 토요일에 독도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어린이, 중년층, 노년층 모두 독도에 대한 의식을</p>

			<p>함양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들고 있는 독도피켓에 적힌 문구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또한 몇몇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저희가 한 하나의 작고 사소한 활동이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독도사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희망과 기대가 생겼습니다.</p>
2018.05.16.	독도명함 만들기	대원여자고등학교 청람홀	<p>우리가 진정 독도를 지켜야 하는 독도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하고 후에 독도명함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동아리 구성원끼리만 만드는 것이 아닌 독도명함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전교에서 지원받아 독도명함을 여러 명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명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그 명함이 독도지킴이라는 내용으로 만드는 것이었기에 더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은 독도명함 제작에서 그치는 활동이 아니라 독도와 관련된 기존에 있던 직업과 새로운 직업에는 무엇이 있을지 탐색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까지의 독도와 관련된 직업은 독도 관련 공공기관에 종사하거나 독도 인근 어업 종사자 등 많지는 않지만 미래에는 독도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활동할 직업에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는 과정에서 더욱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독도명함을 만들어보니 내가 진짜 독도에 대해 많이 배워서 독도를 지켜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다고 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p> <p>독도명함 만들기 이후 자신의 가방에 독도명함을 달고 다니거나 이름표 밑에 독도명함을 같이 달고 다니는 등 독도명함이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또한 2학기 때 또 이런 활동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독도명함 만들기를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p>
2018.05.19.	독도체험관 견학	독도체험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p>저희는 동아리 구성원들과 친구들 몇 명이 함께 독도체험관에 견학을 갔습니다. 독도체험관 안의 시설이 매우 좋고 독도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체험관임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 없는 것을 보고 학생들에게 독도체험관을 홍보해 학생들이 보다 더 다양한 독도와 관련된 활동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도체험관에는 독도의 식물과 곤충, 독도의 옛 주민과 현재주민, 독도의 기후, 독도 지형의 특징, 독도 화산암, 세종실록지리지, 안용복, 김윤삼 노인 등 인물에서부터 자연환경까지 사람들의 눈길이 잘 미치지 않는 곳까지 자세하게 설명해놓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p>

			<p>저희는 이렇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땅인 독도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알려주고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체험관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이 체험관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독도라는 섬은 매우 작은 섬이지만 그 안에는 풍부한 역사와 지하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독도체험관에서 저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낀 것을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로 다짐했습니다. 물론 직접 가서 체험을 해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었지만 직접 체험관으로 갈 시간이 없거나 의지가 부족한 학생들은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를 실천하고자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대원 독도신문'을 만들고, 사이버 독도체험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p>
2018.05.25.	독도교육(1)	<p>용곡중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22길 76)</p>	<p>저희 동아리 구성원들은 몇몇 선생님이 꿈인 친구들과 독도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 용곡중학교에서 독도교육을 했습니다. 대원독도지킴이에 속한 사람들 중 과반이 용곡중학교 출신이었으며 서로 대화를 하던 도중 용곡중학교에서도 독도사랑 실천이 부족하며 독도교육이 활성화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아서 우리가 직접 용곡중학교에 가서 독도교육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용곡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단기방학이었지만 용곡중학교는 학교에 나오는 날이었던 25일에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 용곡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저희가 진행하는 이번 독도교육도 그저 형식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입식의 교육이 아닌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론형 교육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독도에 대해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알려줄 수 있었고, 학생들이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p>
2018.06.02.	독도 워크북 제작	<p>집</p>	<p>동아리 구성원 중 한 친구의 집에서 모여 독도 워크북을 제작하였습니다. 독도 워크북 제작은 저희들의 독도와 관련된 지식과 개념을 체계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다는 사실을 듣고 몇몇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지원하였습니다. 독도의 자연환경, 지하자원, 강치, 서도와 동도 등 각자 세부적인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대해 각자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여 독도 워크북을 제작했습니다. 제작한 후 서로의 독도 워크북을 공유하여 읽어본 후 독도와 관련하여 새로 깨달은 점이나 다른 학생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점 등을 토론하고 추후 만들 독도신문에 어떤 내용을 기재할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도 워크북을 제작하며 독도에</p>

			대한 보다 더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번에는 저희 동아리 구성원에서만 국한된 활동으로 끝이 났지만 다음에는 교내 독도활동으로 독도워크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동아리에 속해있는 우리 학교 총학생회장, 부회장을 통해 학교에 이 활동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교내 독도활동으로 독도 워크북 제작을 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분명 독도와 관련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2018.06.09.	독도 인물사전 제작	대원여자고등학교 미르홀	독도와 관련된 인물에는 누가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속 인물에는 누가 있는지 알기 위해 저희 동아리 구성원들은 독도 인물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독도 인물사전을 만들며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위인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의 이력과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신라장군 이사부와 어부 안용복, 박어둔, 이규원, 홍순철, 독도 의용수비대에 속해있던 인물 등 10여 명의 독도 인물을 사전에 소개했습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게시판에 저희가 직접 만든 독도 인물사전을 게시해 많은 학생들이 독도와 관련된 인물에는 누가 있는지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대원여자고등학교 선생님들까지 독도 인물사전에 관심을 보이시며 각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인물사전 덕분에 알게 되었다고 하시고 우리 학교가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시는 등의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2018.06.15.	독도 홍보 영상 시청 및 학내방영	대원여자고등학교 1학년 1반~9반, 2학년 1반~10반	저희 동아리 구성원들은 항상 글을 통해 독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독도에 대해 배우다 보니 독도와 관련된 영상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았고 독도에 대한 영상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찾던 도중 '독도연구소'라는 사이트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독도 관련 많은 영상을 시청하고 독도연구소에 있는 독도 영상도 시청했습니다. 많은 영상을 시청한 후 우리가 시청한 영상 중 독도에 대해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 영상 하나를 정해서 조회 시간에 대원여자고등학교의 1학년과 2학년 반 전체에 방영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대화 끝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하기 딱 적절한 영상이 독도연구소에 있는 '독도 홍보 영상'이라는 의견으로 일치해 대원여자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동의를 얻고 방송부의 도움을 받아 이 영상을 학내 방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는 태도를 보였고 영상이 끝난 후에도 서로 웅기종기 모여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끼리 영상에 대한 퀴즈를 내면서 서로 얼마나 영상을 집중해서 보았는지 알아내고 옆의 친구가 영상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는

			등 독도 영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 점점 독도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학생들이 많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독도신문에도 홍보하여 3학년 선배님들이나 학교에 늦어 영상을 보지 못한 학생들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06.20.	독도를 주제로 에코백 및 파우치 만들기	대원여자고등학교 미르홀	2018년 6월 20일에 독도를 주제로 에코백과 파우치를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쓰고 우리에게 있으면 유용한 에코백과 파우치에 자신이 직접 독도를 주제로 무늬를 넣고 꾸미면서 독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넓고 얇은 지식만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도가 우리에게 항상 배워야지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 독도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의 활동을 통해 독도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심리적으로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동아리 구성원만의 활동으로 국한지어 했지만 다음번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많은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친밀감 형성과 주권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만든 독도 에코백과 파우치를 각자 가져가지 않고 학교의 곳곳에 비치해두어 이런 활동도 독도를 지키는 하나의 활동이 될 수 있음을 내포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학생들은 독도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를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8.06.23.	독도교육(2)	사랑어린이집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 50 청계벽산아파트)	용곡중학교에서 교육을 한 후 용곡중학교의 상담실에 모여 저희가 했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떤 점이 부족했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피드백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독도를 학생들이 친근한 대상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보완하고자 사랑어린이집에서 다시 한 번 더 독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용곡중학교에서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독도교육을 했던 것이었으나 사랑어린이집에서는 2세~5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독도교육을 하는 것이었기에 아이들이 독도를 친근한 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독도와 관련된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독도에 보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독도교육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같이 놀아주는 등의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독도교육을 할 때 집중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면에서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느끼게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독도교육을 한 후 어린이집 원장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한 부분에서 아쉬웠던 점 한 가지는 동화책이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수준이 높아 그림

			이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읽어줬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한 동화책을 찾으려면 어린 친구들이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읽을 만한 독도와 관련된 동화책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에 문제인식을 하여 우리가 사후활동으로 직접 독도동화책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018.07.14.	캘리그래피로 독도 문구를 작성해 편지봉투 꾸미기	대원여자고등학교 미르홀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으로 캘리그래피를 신청하여 수업을 들었던 4일차에 선생님께 열심히 캘리그래피 수업을 듣던 도중 독도와 관련된 문구를 쓰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가 직접 한 물건에 쓰고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나눔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은 편지봉투 겹면에 독도 관련 문구를 작성해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캘리그래피를 배우는 5일차가 되던 날, 캘리그래피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께 수업이 시작하기 전 독도와 관련된 문구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같이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침 저희 캘리그래피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독도에 관심이 많으시고 얼마 전에 독도 대회에서 서예부문에 캘리그래피로 쓴 독도관련 문구를 제출하셔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를 부탁한 후 오늘 수업은 아예 독도에 집중을 하자고 하시며 독도관련 문구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저희가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캘리그래피로 독도와 관련된 문구를 작성한 편지지를 지역사회에서 나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도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몇 장을 손수 쓰셨습니다. 같이 수업을 들었던 동아리에 속해있지 않은 학생들도 독도와 관련된 문구를 작성하는 것에 흥미를 보이고 이런 방식으로 독도에 접근하니 독도가 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2018.07.14.	독도배지 제작	대원여자고등학교 장미학사	캘리그래피 수업이 끝난 후에 수업을 같이 들은 학생들과 함께 독도배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배지도 나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활동에 임했습니다. 독도배지 도안을 제작하며 독도배지를 보는 사람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 함양과 독도사랑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는 디자인을 고안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배지 디자인 고안 후 배지를 직접 만들면서 우리가 만든 배지를 받은 주민들 중 누군가가 자랑스럽게 달고 다닐 것을 생각하니 신중하지만 기쁘게 배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2018.07.12. ~2018.07.14.	독도 UCC 제작(플래시몹 활동)	대원학원 입구, 중곡역 2번출구 앞,	독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저희 동아리 구성원들이 독도와 관련된 활동들을 무엇을 했는지 알리기 위해 독도사랑 UCC를 제작하였습니다.

		국립정신건강 센터(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27) 앞	<p>또한 UCC 안에 요즘 학생들이 취미로 즐겨듣는 가요가 아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로 플래시몹을 했습니다. UCC로 저희 대원 독도지킴이가 했던 활동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면서 우리가 한 활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으며 저희 동아리의 활동 전과 후를 비교해보며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인지해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 <p>또한 플래시몹 활동을 하며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글씨를 저희가 직접 쓴 티를 입고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저희의 춤을 보고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 추었습니다. 저희의 티를 보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듣고, 저희의 춤사위를 보고 지나가시던 주민들이 "독도는 우리땅, 파이팅!"이라고 해주시고 "아이고, 학생들이 참 기특하네. 이런 생각도 다 해내고."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독도에 대한 눈길 한 번,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동아리 구성원들끼리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p>
2018.07.16. 2018.07.17.	독도 UCC 학내 방영	대원여자고등 학교 1학년 1반~9반. 2학년 1반~10반	<p>이틀에 걸쳐 대원여자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모든 반에 저희가 제작한 독도 UCC를 방영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독도와 관련된 여러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고 독도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플래시몹을 보며 다시금 깨닫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독도 UCC 학내 방영을 통해 저희가 한 활동을 저희만의 활동에서 끝내는 것이 아닌 전교생과 나누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독도활동에 흥미를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독도 활동'이라는 것에는 얼마나 다양한 활동이 있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 증진과 더불어 저희 동아리 구성원들과 활동에 함께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꾸준히 있을 독도활동의 방향성을 알리고 이를 격려하는 기능도 했습니다.</p>
2018.07.17.	독도 활동자료집 각반 게시	대원여자고등 학교 1학년 1반~9반. 2학년 1반~10반	<p>또한 2018년 7월 17일, 독도 UCC를 학내에 방영한 후 우리 동아리가 결성된 취지가 무엇이었으며 학교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저희의 활동자료집을 각반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게시된 활동자료집을 보고 학생들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한 줄 몰랐다면서 놀라워하고 앞으로도 이런 독도와 관련된 활동들이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p>

2018.07.19.	독도 견학	동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p>‘울릉도 및 독도 견학’이라는 학교 프로그램이고 생겨 저희 동아리인 대원 독도지킴이에 속한 구성원 중 3명이 2박 3일로 울릉도와 독도에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독도는 원래 일 년 중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독도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원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좋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동도에서 내려 ‘독도 이사부길’이라는 도로명주소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역사 속 인물의 이름으로 되어있다는 것이 흥미로워 서울에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이를 알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또한 저희 동아리 구성원 및 대원여자고등학교, 대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포함해 같이 독도에 갔던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나라 국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관심과 사랑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였으며 애국심이 독도 전체를 둘러싸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독도에서 머무른 20분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으며 우리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독도를 간 것처럼 다른 학교에서도 독도로 가는 체험학습이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2018.07.25.	독도 포럼 연구 및 발표	대원여자고등 학교 아람홀	<p>독도 견학을 갔다 온 후 ‘독도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현재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에 대해서는 여러 활동을 진행하며 알 수 있었으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독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무관심해졌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희의 독도에 대한 인식 확산 활동이 타 국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타 국가 사람들까지도 독도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게 되었습니다.</p>
2018.07.24.	독도 여행책자 제작	대원여자고등 학교 미르홀	<p>독도 견학을 간 후 2018년 7월 24일, 저희는 동아리 구성원들 중 독도에 견학을 갔던 친구들과 독도 여행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독도에서는 고작 20분만 머물렀기 때문에 독도의 내용만으로 독도 여행책자를 구성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2박 3일 동안 주로 머무르며 여러 곳에 견학을 갔던 울릉도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여 독도 여행책자를 구성했습니다. 독도 여행책자를 제작하며 우리가 견학에 갔을 때에는 그저 보고 지나쳤던 것들에 어떤 원리가 담겨 있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p> <p>저희가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들을 저희 학교 학생</p>

			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여행책자에 있던 독도 이사부길과 독도 안용복길을 보고 독도의 도로명주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이 도로명주소인 것에 흥미를 가졌고 울릉도의 봉래폭포에 가는 길에 있는 천연에어콘도 천연이니 환경오염이 될 일도 없고 더운 날씨에 무료로 들어가서 땀을 식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서울에도 길 곳곳에 천연에어콘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독도 여행책자를 통해 독도를 간접 견학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다음에는 직접 독도 견학을 가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2018.07.28. 2018.07.29.	편지봉투 및 독도배지 나눔 활동	중곡역 부근, 대원학원 정문 앞	<p>저희는 우리 주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바쁜 삶 속에서 잠깐이라도 독도에 흥미를 가지게 하고자 2018년 7월 28일과 7월 29일에 이틀에 걸쳐 캘리그라피로 독도 문구를 작성한 편지봉투와 독도배지 나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의도와 다르게 몇몇 사람들은 말을 무시하시거나 기부를 요구하는 거냐고 의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분 좋게 편지봉투를 받아주시고 독도사랑을 실천하고자 하고 있는 저희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저희의 나눔 활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p> <p>어떤 분은 저희가 학교에서 독도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사회의 독도에 대한 관심도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하니 저희에게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이번 대원독도지킴이 활동 덕분에 독도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이 생겼고 이로 인해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는 매우 잘 설명해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잘 설명을 해드리는 모습을 보고 기특해하시며 그 주민분도 독도에 대해 더 공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p>
2018.08.04. 2018.08.06.	대원독도신문 만들기	대원여자고등학교 장미학사, 대원여자고등학교 장안관 3층 게시판	독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사이트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던 도중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이 사이트들을 처음에는 저희가 독도 워크북을 만들기 위해, 독도 인물사전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했었지만 대원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이 사이트들을 소개받고 학교에서 직접 활동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독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독도 관련 사이트에 흥미를 가지고 독도체험관 등 직접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곳에 가본다면 학교에서는 시공간적 한계로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해볼 수 있고 미처 알지 못했던 정보도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원독도신문을 만들어 학생들

		<p>이 잘 모르는 독도 관련 사이트와 독도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기로 했습니다.</p> <p>독도에는 동도와 서도, 강치, 코끼리바위 등 매력적인 장소와 생물이 있습니다. 이를 학생들에게 소개해줌으로써 학생들이 독도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독도신문에 독도의 매력적인 장소와 생물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독도에 대해 알 수 있고 독도와 보다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독도신문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학생들은 더욱 폭넓은 독도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2018년 8월 4일에 동아리 구성원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학생들과 함께 독도신문을 만든 후 8월 6일에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8월 6일은 방학 중이므로 방학 중에 게시를 해 놓은 후 학생들은 개학을 하면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특히 독도 관련 사이트와 체험관을 설명해준 부분에서는 더 다양하게 독도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독도의 바위들과 강치에 대해 설명한 부분에서는 독도사랑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p>
--	--	---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활동 보고서	보고서	「교내 독도활동 활성화를 통한 독도사랑 실천 및 우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 증폭」을 주제로 한 독도체험 발표대회 보고서
2	활동 자료집	보고서	동아리가 진행했던 독도활동들의 추진 배경, 활동 내용, 결과 보고 등의 내용과 활동사진을 담은 활동 자료집. 자료집을 만든 후 각 학급에 게시함.
3	독도 UCC	동영상 (유튜브에 탑재)	대원독도지킴이 동아리 활동영상과 '독도는 우리땅' 플래시몹을 포함한 독도 UCC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7d9sqkbXiM&t=66s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대원여자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도명함 만들기, 독도배지 제작 등을 실시하고 독도 홍보 영상을 학내 방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교내 독도활동을 활성화했다. 이를 통해 대원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독도사랑 실천에 기여하였으며 더불어 대원학원에 속해 있는 대원여자고등학교를 제외한 세 개의 학교인 대원고등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대원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켰다. 또한 전교생에게 독도활동에 함께 참여할 것을 유도하고 독도 관련 사이트와 체험관을 홍보하여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우리 모두가 독도지킴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향후 계획

우리가 하는 이 활동이 단편적인 활동이 아닌 장기적인 활동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독도배지 및 독도 워크북 제작, 독도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현재는 자율동아리인 대원독도지킴이가 우리 학교의 상설동아리로 자리 잡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우리 동아리가 대원학원을 대표하여 학생들이 독도활동에 참여할 것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독도배지 제작, 독도명함 만들기 등 독도 체험을 제공하여 독도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킨다. 또한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우리의 활동 영상이나 사진을 게시해 많은 사람들과 독도활동을 공유하고 독도와 관련된 각종 사실들을 올려 사람들이 독도와 관련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팀)원	느 낀 점
박가은	친구들과 독도대회를 준비하고 독도를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을 독도 여행책자에 넣고 독도 인물사전, 플래시몹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다녀왔던 독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길거리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틀어놓고 따라 부르고 춤을 추며 우리가 춤추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독도에 대한 인식을 다시 심어주거나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독도 관련 UCC를 찍고 나서 이 활동을 더 열심히 해 모든 사람들이 독도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의지가 많이 생겼다. 독도체험 발표대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저희 동아리 구성원들도 독도와 관련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의미 있고 뿌듯한 시간이었다.
성예진	교내 독도활동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구성원들과 함께 독도를 알리기 위한 많은 활동들을 했다. 먼저 독도를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을 이용해 독도 여행책자를 만들고, 독도와 관련된 우리나라 인물들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 독도 인물사전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나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독도를 지키기 위해 힘쓴 인물들의 훌륭한 업적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이를 다른 친구들도 알게 해줄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 또한 독도체험관을 방문해 독도와 관련된 많은 사실들을 배우고 독도 관련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며 독도를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었다. 독도체험관에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견학을 갔으면 하는 마음에 독도신문을 만들어 그 곳에 독도체험관을 홍보하고 이를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며 뿌듯함을 느꼈다. 또한 그밖에도 독도 UCC 만들기, 독도 캘리그래피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독도와 관련된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오현정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땅인 독도를 알리기 위해 능동적인 행동을 취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번 동아리 활동을 통해 나와 동아리 구성원들은 물론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도 독도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켜줄 수 있게 된 것 같다.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배지와 편지봉투 나눔 활동이었다. 나눔이 아닌 돈을 기부하는 것을 바라는 줄 알고 무시하고 지나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지만 고맙다는 말과 함께 기분 좋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는 우리 이웃들에게 말을 걸고 물건을 주려니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계속 나눔 활동을 하다 보니 익숙해졌고 왜 미리 이런 활동들을 하지 않았는지 후회되기도 했다. 우리의 활동이 작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독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하다.
유지혜	나도 잘 몰랐던 독도를 이번 동아리 활동을 하며 더 자세히 차근차근 알게 되었고 내가 알게 된 독도와 관련된 정보들로 직접 배지와 편지봉투에 독도에 대한 정보를 담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 더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독도와 관련된 많은 사이트들을 알아내 직접 독도신문을 만들어 그 곳에 독도 관련 정보들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활동들이 결실을 맺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또한 인근 중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일고 있는 독도와 관련된 지식에 대해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해줄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다.
이채현	우리가 독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웠으며 지금까지 다른 일들만을 하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독도에 무관심했던 것이 후회됐다. 독도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독도에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뿌듯함을 느꼈다. 또한 독도명함 만들기, 독도워크북 제작 등의 활동을 하며 독도주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참여할 것을 권유하며 우리가 함께 독도를 지켜야 하고, 함께 해야 독도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사람들이 독도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한 발 앞서서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에 감사하다.

5. 건의사항

- 사람들이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독도 체험관이나 박물관 등 독도 관련 시설을 확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이 독도와 관련된 많은 지식을 쌓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독도교육을 활성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고교생 독도 경시대회를 만들어 학생들이 독도와 관련된 지식을 자발적으로 쌓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